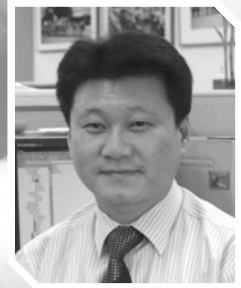


■ 양계산업

# 연초 발생한 고병원성 AI 최악의 사태



황 일 수  
대한양계협회 회장

■ 2008년 양계업 결산

● 주요현안

2008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사상 최악의 사회적 관심거리로 부각되었다. 예년과 달리 기온이 상승하는 4월에 발생한 점, 정확한 근거자료도 빈약한 인간전파 가능성을 다룬 국내외 관련 뉴스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양계산물 산지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생산 잠재력이 높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유통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양계산물 생산원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직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배합사료 수급불안정으로 이어짐에 따라 농장의 경영악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해 되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중 가장 많은 유류를 사용하는 양계업은 또 한 차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밖에 농장단계의 HACCP 적용, 친환경 인증을 득한 양계산물의 증가세 등은 과거 생산에만 전념하던 시대를 지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다가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농장 경영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산란계

산란계의 경우 실용계와 종계 병아리가 사상 최대수치로 입식된 한해였다. 특히 종계 입식수수는 8월에 이미 전년 총 입식수수를 초과함에 따라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업계 자체적으로 지켜오던 종계사육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부터다.

2007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상당 폭 증가된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식 영향으로 6월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가 6천만수대의 수치를 보이면서 이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같은 수치는 고병원성 AI 파동 때 약 42만수의 산란실용계가 살처분된 이후 수치라 놀라움이 더했다.

2008년 외형상으로 조사된 산지 계란값은 전년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AI가 발생한 4월 이후부터 가격하락세는 이어졌고 추석 특수수요기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높게 형성된 가격 이면에는 예년보다 큰 폭의 DC가 있었고 재고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한편 큰 폭으로 증가 입식된 산란실용계 영향으로 추석을 전후하여 잔알 생산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순에는 이들 물량이 계란유통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정한 수급상황을 주도했다.

● 육계

2008년은 육계경기를 악화시키는 세가지 요인의 수치가 크게 나타난 해다. 먼저 종계병아리 입식수수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던 2007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AI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수입닭고기 물량 또한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상황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

하지만 냉동재고량이 크게 증가해 있는 상황에서도 북경기에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산지 육계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들 재고량은 상당기간 유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점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국내 육용원종계 사육수수는 적정수치를 크게 초과한지 상당기간 지났지만 감축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감축을 위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한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2009년 양계업 전망

● 산란계

(자료분석)

1. 산란종계 입식현황

(단위 :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8	55	36	43	0	91	96	61	79					461
2007	39	26	68	63	15	0	31	49	96	23	29	10	449
2006	39	14	0	36	49	52	33	35	32	60	50	30	430
2005	10	76	0	0	48	60	96	0	32	40	0	58	420

- 2008년 산란중계 입식수수는 460,128수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6% 증가했다.
- 특히 2007년 전체 입식수수보다 2.3%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용계 발생수수의 큰 폭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 2009년 1/4분기 산란실용계 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2008년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중계는 186,600수로 전년 같은 기간 77,500수 대비 무려 140.8%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이같은 증가세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2009년 전체 산란실용계 생산수수는 사상 유례 없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산란실용계 판매수수

(단위 :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8	2,857	2,787	3,151	3,469	3,460	3,046	3,077	2,985					24,832
2007	2,592	2,188	2,461	2,581	2,365	2,194	2,486	2,493	2,494	3,039	2,709	2,236	29,838
2006	2,050	2,654	2,752	2,288	2,637	2,523	2,390	2,693	2,508	2,415	2,311	2,351	29,572
2005	2,588	2,138	2,013	2,920	3,190	2,351	2,662	2,622	1,809	1,943	1,931	1,981	28,148

- 2008년 8월까지 입식된 산란실용계는 24,832천수로 2007년 같은 기간 17,073천수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중 2009년 1/4분기 큰알 생산에 영향을 미칠 2008년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실용계는 9,975천수로 전년 동기 7,140천수 대비 39.7%가 증가했다.
- 또한 2008년 7, 8월에 이어 연말까지 분양될 산란실용계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어도 2009년 계란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2008년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는 최고수치를 보였던 2007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계란소비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란실용계 감축이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육추사료 생산실적

(단위 : 천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8	28	27	25	30	28	28	29	27					222
2007	25	24	24	26	28	26	26	24	24	27	28	29	311
2006	20	20	23	26	29	28	25	25	26	28	26	26	302
2005	25	23	25	25	26	27	28	29	28	28	26	24	314

- 2008년 8월까지 생산된 육추사료는 222,447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2,900톤 대비 9.6%가 증가했다.
- 이같은 증가세는 2007년 11월부터 이어졌으며, 2008년 산란종계 입식수수를 감안할 때 같은 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이렇게 될 경우 위 산란실용계 입식수수에서도 언급했듯이 계란생산량의 큰 폭 증가현상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자칫 큰 불경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 한편 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 월별 육추사료생산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한차례도 감소된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계란생산량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 (2009년 산란계 경기전망)

2008년 추석을 전후로 수도권지역의 계란값은 특란 개당 150원까지 인상되었다. 이같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인상된 사료비, 출하시 DC 등을 감안할 경우 생산원가 선을 겨우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산란종계 사육쿼터제가 폐지되면서 표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적정 수수를 크게 초과한 산란종계가 입식되었고 이 영향으로 산란실용계 입식수수 또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산란종계 병아리 입식동향을 감안할 때 2009년 실용계 분양수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08년 6월 현재로 조사된 6천만수대의 산란계 사육수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지 계란값은 특정 시기와 계절에 따라 다소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예년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같은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추석 명절 특수 수요기에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계란 값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려한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 육계

(자료분석)

1. 분기별 육용원종계 입식현황

(단위 : 수, D라인 기준)

구 분	1/4	2/4	3/4	4/4	합 계
2008	-	49,000	35,000	62,000	146,000
2007	-	70,600	22,533	76,480	169,613
2006	-	62,000	-	79,600	141,600
2005	-	50,000	2,200	57,000	109,200

※ 2008년 4/4분기는 예측치

- 2008년에 수입된 육용원종계(D라인 기준)는 총 146,000수로 전년 169,613수 대비 13.9%가 감소했다. 실제 필요수수를 약 11만수대로 추정할 때 30%대 이상 초과한 수치로 판단된다.
- 이중 2/4분기에 입식된 육용원종계는 49,000수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9년 2/4분기 육용종계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반면 3/4분기에 입식된 계군이 35,000수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3%가 증가 입추되었 으며, 따라서 이계군의 도태시기까지는 예년 대비 상당 폭 증가된 육용종계가 생산되겠 다.

## 2. 월별 육용종계 입식현황

(단위 :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08	341	500	609	473	487	356	508	527					3,801
07	345	581	648	513	455	467	576	647	584	399	356	275	5,846
06	296	527	541	414	376	350	577	610	548	447	363	287	5,342
05	279	438	484	452	395	429	619	664	537	344	249	176	5,066

- 2008년 8월까지 입식된 육용종계는 3,801천수로 전년 같은 기간 4,232천수 대비 10.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중 2009년 1/4분기 육용실용계 생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2008년 2/4분기 입식수수는 1,316천수로 전년 동기 1,435천수 대비 8.3%가 감소했다.
- 2008년 3/4분기에 입식된 종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09년 2/4분기까지도 육용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연간 육용종계 필요수수를 약 500만수대로 가정할 때 2008년에는 상당 폭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육용원종계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대폭 증가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종계사육에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수급조절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 3.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단위 : 십만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09	471	468	480										1,419
08	495	502	526	551	560	548	510	475	458	466	478	482	6,051
07	410	419	451	487	508	509	485	458	455	477	503	505	5,667
06	412	436	474	511	520	503	462	423	409	420	431	424	5,425

- 2009년 1/4분기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1,419십만수로 전년 같은 기간 1,523십만수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종계 입식수수를 감안할 때 이같은 감소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2008년 총 잠재력 수치는 적정수를 대폭 증가한 것이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종계입식수를 감안한 월별 예상수치를 제시하는 자료이므로 흐름을

참고하는데 이용하면 되겠다.

**(2009년 육계경기 전망)**

2008년 삼복 기간에는 모처럼 고가의 육계값이 형성되었다.

통계자료에는 동 기간에 어려운 유통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AI 발생이후 예상치 못했던 소비회복과 삼계닭 생산량 감소가 전반적인 육계가격을 지지했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2009년의 경우 통계상 수치를 적용할 경우 2008년 육계생산량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8년 통계수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단순 적용은 곤란한 것이다.

한편 2009년 전반적인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적정 생산량을 다소 큰 폭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닭고기 소비패턴으로 감안할 때 이렇다할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합사료 및 유류대 폭등으로 농가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예상보다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종계 사육수수 감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물론 소비를 늘려 산지 가격 지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워낙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